

1. 피피티 완료되면 압축해서 링크에 올리기.
2. 13조 다음 발표

< 발표 대본 >

3조 발표를 맡게 된 엄다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준비는 되었는가?” 저희조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정책과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초고령사회란 무엇인지 용어정의와 초고령 사회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종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소개 후 다른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결론 및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4p)

보고 읽기

<지연>

1. 고령화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6p)

대한민국 고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언론 보도들을 모은 자료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일할 젊은이가 없다”, “6070 인구가 3040을 추월” 같은 표현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상위권 (7p)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 OECD 평균인 10.1%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3. 2000년 이후 고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변화 추이 (8p)

생산인구는 거의 정체 상태이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난다는 의미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4. 노인복지정책별(의료, 일자리, 연금) 설명하기 전에 말할 내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에 따라 저희조는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다현>

1. 지역별 고령층 인구 비율 (p10)

위 자료들은 지역별로 65세 인구 비율에 대해 시각화한 자료들입니다. 분석결과 전남, 경북, 강원 등 지방 지역일수록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지역별 병원요양시설 수(p11)

그다음 지역별로 병원,요양시설은 몇 개 있는가 시각화를 해보니 의료시설수는서울•경기등수도권과광역시에집중되어있으며,

비수도권지역은상대적으로낮은접근성을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3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원시설수가 적다는걸 볼 수 있습니다.

3. 1만명당 의료 요양시설 수(p12)

지역별 노인비율과 요양시설 수를 이용해 1만명 당 의료/요양시설 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제일많은 지역과 제일 적은 지역은 무려 2배이상 차이가 나며, 수도권 광역시 중심, 고령화 심화된 지역일수록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해결방안 제시(p13)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료취약지역 지정 및 거점병원 확충, 의료 인력 배치, 방문 진료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해보았습니다.

<지연>

5. 노인 일자리의 동기와 만족도 요인 분석 (15p)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노령층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77.9%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효과의 주된 요인으로 ‘소득 증가’가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신체건강 유지나 여가시간 활용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한 노동이 중심이지만,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 노인 일자리 정책 소개 파트 (16p)

그다음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정책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공익, 사회서비스, 시장형 사업,민간형 등으로 봉사,돌봄,소규모 수익사업,기업 연계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7. 노인일자리 정책 변화 전 후 고용률 변화 (17p)

위 그래프는 노인일자리 정책 시행 전과 후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14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모든 지역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 충북, 전북, 대전은 10% 이상 상승하며 정책 변화의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2019년을 기점으로 변화된 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으로 노인 고용률 향상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8 노년층 고용률과 빈곤율의 관계 (18p)

위 자료를 보면 고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빈곤율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일자리만으로는 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다.

즉,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Top4 고용률 변화에 관한 질문 들어올 시 답변]

노동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 구조

농업·서비스업 중심 지역 → 신체적 부담이 덜한 단순 노무나 지역 커뮤니티형 일자리 존재

특히 전북·강원은 도시보다 자영업·소규모 일자리 참여율이 높음

->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짐.

<현서>

1)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현황

>20p

수급자와 평균수령액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를 반영하였고,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뜻합니다.

>21p

그다음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을 뜻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수급자 수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p

또한 연도별로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하위 70% 전체에게 월3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들이행하여 지급액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커진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p

노인가구 소득 현황에 대해 보시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적연금의 소득 기여도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의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24p

그다음 노인빈곤율에 대해 살펴보면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수치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 2.8배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입니다.

>25p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해 봤을때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 최고 빈곤율 수준이며, 시급한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6p

따라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저희는 3가지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첫번째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지급액과 수급의 형평성문제가 존재 함으로 공적연금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된다

두번째, 현재의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생활이어렵기때문에, 근로소득 의존도가높으므로,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운용이나 재산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안정적 수입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상위이므로 정책개선이 시급하며, 정책을 개선할 때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통합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빈>

>28P. 노인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의 국제 비교

위 그래프는 나라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에 쓰이는 지출비용을 나타내는 선그래프입니다. 다른 초고령사회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oecd** 평균보다도 **4%** 낮은 추세로, 한국이 노인복지 재정비용 확대와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P. 그다음 해외의 고령사회 우수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30P. 일본 – 초고령 사회의 선두 국가

일본은 초고령사회의 선두 국가로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예방·주거·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 평생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병원만 늘리는 것보다, 지역 중심의 통합적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1P. 독일 – 지속가능한 연금 및 요양제도

독일에서는 지속가능한 연금, 요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국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현금급여 또는 요양서비스 중 선택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은 공적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요양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32P.

덴마크는 노인을 위한 '탈시설화' 선진국으로서 장기요양시설을 축소하고, 노인이 각자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생활보조 헬퍼를 배치하여 고령자 삶의 질 중심의 복지접근이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33P. 해외 고령사회 대응 우수사례를 통한 제언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부족,
2. 시설 중심의 돌봄으로 인한 개인 부담 집중,
3. 공공·민간 시스템 간 연계 미흡.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 돌봄수당 제도화를 통해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 돌봄센터를 확충하여 부담을 분산하며, 공공과 민간의 플랫폼을 통합해 서비스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해볼수 있지 않을까 제언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08. 결론 및 기대효과** 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및 요약

저희가 분석한 노인복지정책 결과를 요약해보면, 의료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중이나 단기, 저임금이며, 일자리 만족도가 낮고 지속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다, 연금제도도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므로 연금 제도를 개혁 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별로 맞춤형 의료 인프라 확충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자리 + 소득보장까지 연계한 복지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노인의 자립성,건강수명, 사회참여도도 증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의

본 프로젝트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단순한 현황 조사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 분석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